

핵심가치 따라잡기

*이 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 6-7페이지에 나오는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을 꼭 숙지해주세요.

인도자를 위한 이 과의 목적 :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마땅히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교회 안에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활하도록 도전한다.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

오늘의 말씀 : 고전 1:4~17

찬송 : 80장(통 101,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기도 : 인도자 혹은 자원자

지난 주 말씀 적용한 것 나누기

마음 열기 :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말씀 듣기 1 : 본문을 다 함께 천천히 읽어 봅시다.

배경설명 및 도움말 :

인도자가 읽거나 혹은 미리 숙지해 온 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참가자들이 두 번째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도록 해줍니다.

Kingdom
Life



배경설명 :

본 서신의 도입부라 할 수 있는 1:1-9에서 바울은 인삿말과 함께 고린도 교회의 긍정적 측면들을 언급하며 감사를 표한다. 그런 후에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의 문제를 길게 다룬다(1:10-4:21). 오늘 본문에 속하는 1:10-17에 따르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있었다. 여기에서 바울은 특별히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이러한 분쟁의 원인이었음을 언급한다. 바울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는가?”(13절)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함을 역설한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밝힌다. 그러면서 그는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당시 헬라인들이 자랑하던 말의 지혜, 즉 인간의 언변과 지혜를 의존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도움말 :

- 언변(4절, 헬: 로고): ‘로고’는 ‘말’, ‘연설’, ‘가르침’, ‘교훈’, ‘교리’ 등의 뜻을 지닌 ‘로고스’의 여격이다.
- 미쁘시도다(9절, 헬: 피스토스): ‘피스토스’는 신실하다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의미이다.
- 글로에(11절): 고린도 교회의 여성도이지만, 그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알려져 있지 않다.
- 아볼로(12절):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행 18 : 24)으로서 성경에 정통하였으며 세례 요한의 제자로 추측된다.
- 게바(12절): ‘바위’, 혹은 ‘반석’의 뜻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름이다.
- 스테바나(12절): 바울이 아덴에 복음을 전했을 때 회심하였으며,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말씀 듣기 2 :

한 사람이 본문을 다시 천천히 읽고, 나머지는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경청합시다.



말씀 깨닫기

1.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이유 세 가지를 찾아봅시다 (4-7절).

1)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것 (4-5절).

2)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 교회 중에 견고케 된 것(6절).

3)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7절).

▶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특징들을 고려할 때,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성숙된 교회라고 생각하는지 1-10사이의 숫자로 표현해 봅시다(1=가장 낮은 수준, 10=가장 높은 수준). 그리고 그 숫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나누어 봅시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 세 가지에 기초해 볼 때, 고린도 교회는 매우 성숙한 수준의 교회처럼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보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어린 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3:1-2 참조). 인도자는 여기에서 교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정말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게 될 것이다.

▶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당신은 무엇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2. 현재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미래에 대해 어떤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8절)

바울은 주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견고케 하심으로 재림의 때에 그들이 책망 받을 것이 없도록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

▶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9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불러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바울의 이러한 확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당신은 우리 교회가 장차 어떤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이다. 목회자나 직분자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도 신실하게 반응해야 한다. 성도들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다루게 될 것이다.

3.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말로 편지를 시작했던 바울이 처음으로 지적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10-13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 중(분쟁, 우상 제물 섭취, 윤리, 예배, 성만찬, 부활 등)성도들 사이에 존재하는 분쟁의 문제를 맨 먼저 지적한다. 참고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있었고, 바울은 네 장(1-4장)에 걸쳐 분쟁의 문제를 다룬다.

▶ 바울은 성도들이 사람을 따라 당을 짓는 것은 결국 무엇과 같다고 설명하며(13절),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엡 1:23 참조)

바울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따라 편을 가르고 나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그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문제와 바울의 질책은 당신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현대 많은 교회들 안에서도 사람(목사, 장로, 혹은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등)을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움직여야 한다.

4.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는 바울파들을 향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설명하며, 이 목적을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17절)

바울은 세례를 베푸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중에 이러한 자기의 사명을 설명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13-16절 참조)

사람들이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에게 속했다며 당파를 조직한 이유는 아마도 그 세 사람 각각이 행한 일들(세례 주는 것 포함)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바울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은 단지 그리스도에 의해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을 뿐이라고 밝힘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시선을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고 있다. 바울이 세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면서도(롬 6:3-7 참조), 굳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라고 밝힌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이다.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고 밝힌 이유도 성도들의 시선을 바울에게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우리 교회가 연합 혹은 하나됨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각각 다른 생각, 가치관, 세계관 등을 지니고 있고, 또한 독특한 삶의 경험들을 해왔기 때문에 서로 하나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런 가운데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가 있기에 교회 안에서 학연, 지연, 혈연에 기초해서 당을 짓는 경향이 있다.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에 기초해서 당을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교회가 하나될 수 있는 토대는 각자가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다.



말씀 따라 살기

*인도자는 참가자용에 나오는 두 개의 질문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식의 질문을 먼저 하라: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보고, 그 말씀을 한 주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자들은 1번(개인 적용) 질문을 건너뛰어도 될 것이다.

1. 당신의 신앙 생활에서 가장 우선적인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한 주간 그 핵심 가치에 맞추어 살아봅시다.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 가치에 대해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운 중요한 핵심 가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을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예: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을 대하듯 하기, 예수님

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등). 그런 후에 그러한 구체적인 생각들에 기초하여 한 주간을 살아보도록 도전하자.

2.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우리 소그룹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나누어 보고 함께 실천해 봅시다.

우리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그리스도 외에 그 어느 누구도 될 수 없음을 명심하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잘 훈련되어지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예: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앞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지를 생각해 보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다.